

보성·고흥군, '기업 환경' 크게 좋아졌다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지자체의 규제 순위를 공개한 뒤 4개월여 만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특히 보성군은 4개 항목의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진화성' 지자체 순위를 124위에서 53위로 71계단이나 끌어올렸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4월 말 현재까지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에 따르면 보성군은 공장 설립지의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장입지의 업종제한을 삭제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대한상의 '전국 규제지도' 공개 공장입지 업종 제한 삭제 등 조례 개정 통해 순위 '썩썩'

의 서면심의 조항을 도입, 행정업무를 단축시켰다. 공장의 주차장 부지 조항도 완화하는 등 4개 항목의 규제를 개선해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고흥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입지 제한 폐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3번) 규정을 도입, 153위에서 108위로 순위가 45계단이나 올라갔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4월 말 지자체 순위가 40개 이상 상승한 지자체가 전국에 10여곳으로 파악된 가운데 보성과 고흥이 괄목할만한 규제 개선을 이룬 것이다.

이외에도 곡성과 담양, 무안, 영광, 영암, 완도, 장흥, 함평, 해남군 등이 1개 이상의 규제 개선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합

집계될 전국 규제지도에서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남군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27위로 높은 수준의 규제 완화 순위를 기록한 가운데 추가 개선으로 순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규제 완화가 잘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편차가 심했는데, 규제지도 발표 후 지자체마다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화의 움직임이 많아 보이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와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에 더딘 모습을 보였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규제지도에서 시작된 규제 개혁 훈풍이 기업환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지자체의 규제 환경을 평가했다니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

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 여부를 묻자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변화없음'은 36.7%, '악화됐다'는 응답은 2.0%였다. 부문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답이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기업체감도 조사의 표본 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8000개로 확대하고 경제활동진화성 분석 분야도 5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도 홈페이지에 기업환경에 대한 참고 정보를 함께 제공, '전국기업 환경지도'로 발전시켜 이를 입지 선택을 위한 종합정보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4.58 (-27.65) ▲ 금리 (국고채 3년) 1.97% (+0.07)
- ▼ 코스닥 665.94 (-11.96) ▲ 환율 (USD) 1080.00원 (+0.80)

금호산업 수의계약 오늘 최종 결정

본입찰이 유찰된 금호산업 매각 방향이 7일 결정된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7일 오후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절차를 두고 토론한다.

지난달 28일 끝난 금호산업의 본입찰에서는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채권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이날 정해진 방향을 채권단에 서면으로 안건에 부치고 채권단이 5월 중순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가·부를 통보하면 향후 절차가 확정된다.

채권단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유찰을 확정하고 재입찰 절차를 거치는 방안과 우선매수청구권을 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바로 매수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매각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지만, 올해 초의 예비입

찰 단계에서 5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도 본입찰에는 호반건설 한 곳만 응찰한 점을 고려하면 재입찰의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입찰보다는 박삼구 회장과 곧바로 수의계약(프라이빗 딜)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약 채권단이 박 회장과 직접 협상에 나선다면, 양측은 회계법인 두 곳을 선택해 금호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기업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채권단이 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두고 박 회장과 협의를 진행한다. 박 회장이 제시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다시 일반적으로 가격을 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박 회장이 재차 거부한다면 채권단은 거부 의사를 통보받은 지 6개월 내에 같은 조건에 제3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시티투어

'나주로 마실가자' 호응

금호고속은 6일 나주시와 나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시티투어 버스 '나주로 마실가자'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나주의 유명 관광지들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순환버스로,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25일과 5월2일 모두 전석 예약이 기록됐다.

'나주로 마실가자' 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 빛가람혁신도시와 나주역, 나주읍성, 황포돛배, 천연염색박물관, 반남고분군과 나주박물관을 운행한 뒤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로 돌아온다.

특히 오후에는 영산포 선착장에서 나주 여행의 백미인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강 유람하며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황포돛배는 누런 포를 돛에 달고,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수송하던 조선시대의 물자수송선이다.

버스 요금은 황포돛배 승선료 5000원을 포함한 1만원이다.

나주읍성 투어 및 천연염색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 입장료는 전액 무료, 천연염색 체험료(5000원)와 식비는 개인부담이다. 문의(062-360-8502).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지난 30일 진도에서 생산된 햇미역 2억원어치를 직송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직송된 햇미역은 7일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동시에 판매를 시작한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 세월호 매출 부진 '진도 미역 살리기' 나섰다

대형마트 이마트가 세월호 사고 이후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민과 손잡고 진도미역 명맥 잇기에 나섰다.

이마트는 지난 30일 2015년산 미역 채취가 한창인 진도에서 '햇미역 직송전' 행사를 개최했으며 7일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동시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도의 명물인 햇미역은 3~5월 한정 기간 생산되는 자연 그대로의 미역을 염장 없이 건조, 기온미역에 비해 짭짤한 식감이 좋고 미역 본연의 맛을 느낄 수

현지어 '햇미역 직송전' 전국 매장서 동시 판매

있어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생산량이 작고 가격이 다소 비싸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시장의 외면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판로까지 잃어 생산 어민들의 피해가 컸다.

이마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을 돕고자 진도군과 함께 어민들의 부담을 최

소화 하고자 생산 어민과 직접 계약을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매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어민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진도군은 햇미역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일체를 지원하고 추천서를 발급해 힘을 보탤다.

이마트 관계자는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산지 어민들을 위해 진도군과 손잡고 생산지와 직거래를 더욱 확대 강화해 고객에게는 품질이 뛰어난 상품을 공급하고 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 독자 자동차 첨단 산업용 원사 선보여

'테크텍스틸' 섬유전시회 참여

효성이 지난 4일부터 7일(현지시각)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산업용 섬유전시회 '테크텍스틸(Techtextil) 2015'에서 시트벨트용 원사와 에어백 원사, 탄소섬유 등 자동차 관련 소재를 대거 선보였다.

테크텍스틸은 48개국, 1330개사가 참여하는 전시회다. 효성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인 타이어코드와 함께 자동차부품에 쓰이는 산업용 원사의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전략으로 전시회에 출전했다.

효성은 5일 오후 현지 직물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200여 명을 초대해 '효성 나이트' 행사도 열었다.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을 소개하고 고객사와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장이다.

조현상 효성 산업자재PE장(부사장)은 "세계 최대 산업용 섬유박람회에서는 산업용 원사 품질과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4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량·대금 크게 증가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2015년 4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동향'에 따르면 주식거래량은 6억6094만 주로 전월 5억630만주에 비해 30.54%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4조 9100억원으로 전월 3조3163억원에 비해 48.06% 증가했다.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2.50%로 전월 2.47%에 비해 0.03%포인트, 거래대금은 1.94%로 전월 1.75%에 비해 0.1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으로는 미래산업, 쌍방울, SK증권, 슈넬생명과학, 페이퍼코리아 등 순이었으며, 거래대금 상위종목으로는 제일모직, 한국화장품, 유안타증권, 대우증권, SK하이닉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으로는 케이디건설, 하이셀, 코리아나, 영진코퍼레이션, 씨씨에스의 순이었으며, 거래대금 상위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코리아나, 아가방컴퍼니, 다음카카오, 내츨엔도텍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경북총판 - 모직종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마스코트 제품 및 포장타입의 취급원을 위 화면에서 모직종과 있습니다. (미세, 권의, 천지, 등 달래스테인 자원을 받으신 모든 경우)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추수신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